



#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20. 04. 09 <제27호>

##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와 미중전략경쟁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 정책 제언

####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할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함

- 코로나19는 국제정세에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임. 세계는 이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의 세계로 분명히 구분될 것임
-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무기력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음. 미국 리더십이 부재한 국제질서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중국은 그 틈을 비집고, 대미 자신감과 대담한 외교를 통해 급속히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은 보다 강한 불신을 안고, 격렬해지고, 심화될 것임. 이는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북한에게 미국과의 타협을 통한 핵 포기는 더 이상 고려할 옵션이 아님.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한 시기上記의 정책방향은 너무 위험한 선택임. 북한은 이미 자력갱생, 대남 무장역량 강화,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수정
- 문재인 정부는 총선 이후 기존의 인적/조직의 전면 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변화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새로운 비전과 방책을 제시해 주어야 함

#### 일각의 코드화한 대북 낙관론을 넘어 북한의 실재적인 안보위험에 대한 군사·안보 대비책이 정립되어야 함

- 북한은 우리가 과거 경험한 안보확보에 급급한 북한이 아니라 이미 "강국"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국가"임.
-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어떠한 역량으로도 대한민국 방어를 불가능하게 할 수준에 도달했음.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방어불능인 주한 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은 필연에 가까움
-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위적인 국방역량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평화체제 수립은 중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

#### 친미-친중의 이분법적 경쟁 지양

-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선택의 압력에 더 강하게 직면할 것임. 국내 정치는 점차 친미나 친중이냐의 이분화되는 현상을 보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일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으로 정쟁화하고 있음.
- 친미-친중의 이분법적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 함. 어느 한쪽을 택하던 그 다른 한쪽으로부터 오는 보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임

친미-친중의 이분법적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 함. 어느 한쪽을 택하던 그 다른 한쪽으로부터 오는 보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임

## 문제 제기

###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국의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중국내에 물론이고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됨.**

- 중국의 Chernobyl로 묘사됨
- 사회주의의 체제적인 문제가 잘 드러난 폐쇄적 정보운용,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감추기로 초기 상황인식 실패, 사후 경직된 대응 등.
- 동시에 중국의 낙후된 의료체계와 실태를 여실히 보여줌.
- 혐오스런 중국의 식문화 등이 강조됨.
- 세계 제조업의 공급사슬에서 중국 측의 불안정성 부각효과 존재. 트럼프가 주장한 중국으로부터의 탈동조화가 자연스레 추진되는 효과를 가져 옴. 트럼프가 지불해야 할 정치적 비용을 대폭 축소시킴.
- 미국의 국제다자기구에서 상대적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현상은 그간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줌. 전략경쟁으로 인해 국제기구의 영향력과 권위는 약화되었고, 국제 전문기구의 대응이 중국 편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 지도부와 체제가 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함. 다만, 중국은 현재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후 서방세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오히려 중국의 권위주의 통제 모델이 지닌 효과성이 부각될 여지도 존재함**

- 이 혼란의 과정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우한시 전체를 봉쇄할 수 있었다는 것,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그 과정과 기간 동안 식료품 등 기초 생활자재의 수급이 이뤄졌다는 점, 우한시에 폭동이나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했다는 점은 또 달리 주목할 점임
- 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임. 향후 이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배움이 빠른 나라임. 만약 이 사태를 계기로 보다 책임있는 질병안전체계를 구축한다면 중국의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로 시진핑 체제의 약화나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중국은 아직 시진핑 체제를 대신할 어떠한 정치적 라이벌이나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동시에 여전히 세계 제1위를 향해 부상중인 국가이며, 미중 전략경쟁과 같이 강력한 경쟁자를 앞두고 스스로 분열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

### 코로나19와 서방 국가들의 적절한 대응 실패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지적한 바대로 코로나19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가치 사슬에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데에는 호재로 작용. 즉, 미중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일부국가들은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으로 중국 체제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준비와 대응 실패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음**

- 일본의 대응은 반드시 인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음. 미국의 대응도 질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국부적인 이익이 더 반영된 것이었음. 이는 미국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것은 아님.
-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어떠한 서방국가들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재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지역에서의 바이러스의 확산, 사망자 양산, 경제 침체의 경향 가속화 등은 미국 및 서방의 대중국 소프트파워와 자신감 약화,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다대함.

**이탈리아의 재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유럽 강대국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이 와중에 세계가 얼마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남.**

- 중국의 필요한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 대통령은 “유럽 연대란 것은 허황된 것이었고, 이 순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 뿐”이라는 찬사를 공개적으로 표현.

코로나19로 시진핑 체제의 약화나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중국은 아직 시진핑 체제를 대신할 어떠한 정치적 라이벌이나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이탈리아의 재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유럽 강대국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이 와중에 세계가 얼마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남.

- 중국은 이탈리아에 공기순환기 1000대, 마스크 200만장, 인공호흡기 10만개, 보호복 20만벌, 진단키트 5만개를 제공. 이란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급파했고, 25만개의 마스크 제공.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모든 아프리카 54개국에 2만개의 진단키트와 10만개의 마스크 제공,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도 1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제공을 약속함. 지난 4일에는 중국이 미국 뉴욕주에 인공호흡기 1000대 기증.
- 중국은 그 밖에도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체인 17+1, 상해 협력기구,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그 밖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의 기구들을 통해 정보 공유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적극 전개하고 있음.
- 미국 리더십의 부재상황을 적절하게 파고드는 중국에 비해 미국 트럼프의 무기력한 대응과 고립은 크게 대비되는 효과를 보여줌(캠벨 & 도시, 2020)

### 코로나19의 전(BC)과 후(AC)의 시대는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였던 커트 캠벨과 부르킹스 연구소의 아시아 전략구상의 담당자인 루스 도시는 최근 Foreign Affairs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코로나19를 영국 제국의 몰락을 확인한 1956년 수에즈 사태에 비견하는 것으로 평가**

**코로나19가 미치는 국제관계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Allianz의 수석경제자문관인 Mohamed A. El-Erian은 “new, new normal” 시기의 시작으로 지칭. 탈지구화, 탈지역화의 추이는 기존 세계적인 차원의 공급 사슬을 해체하면서, 위험회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관리, 경제적 수단의 무기화, 세계적인 경제 쇠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부르킹스 연구소의 Adam Triggs와 Homi Kharas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수요부문에서의 충격(9/11), 공급분야에서의 충격(첫 오가거 충격), 금융분야에서의 충격(2008-2009년 충격과 대공황)을 다 결합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될 시기에 미국 리더십의 부재를 목도하고 있음. 세계 각국은 결국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음. 중국은 이 틈을 기회로 삼아 세계무대 차원에서의 역할과 지역 접근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미중 관계 차원에서 코로나19는 당장의 전략경쟁 이슈를 잠재우기는 하였지만, 이를 완화하기보다는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로 접어들면서 미중 전략경쟁 자체는 더 확대되고 깊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미중 양국의 위험 회피 경제관리 전략은 미중 경제를 더욱 탈동조화 정책을 강화하게 할 것임.
- 코로나19로 미중 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 짐. 미중 양측에서 미중 관계의 낙관론이 점차 약화되고, 상호에 대한 관용성도 약화. 경제적 쇠퇴에 직면하여 서로 Scape Goats가 필요한 상황. 미국-영국 간의 우위를 위한 경쟁 모델이 미국-소련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 모델에 가깝게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제4차 산업혁명부문에 대한 투자와 상대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새로운 국제표준 경쟁도 심화될 것이며, 타국들에 대해 이를 위한 선택의 압박도 더욱 강화될 것임.
- 미중 양국 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가급적 피하려 노력하겠지만,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해역을 둘러싼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임.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해양 영향권을 증대시키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해·공군 및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임. 미국은 역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재조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다대함.
- 미국은 코로나19의 와중에서 지난 3월 27일 “타이베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고, 중국의 대미 자신감은 크게 제고되었음.**

- 중국의 생존이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지 않다는 생각이 강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생존을 결정할 역량은 부재하다는 점이 Bottom-line임.
-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은 더 이상 수세적인 대응전략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및 대미 주도권 확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Charm Offensive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중국은 현 상황에서 지난해 말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을 준수하려는 큰 동기를 찾지 못할 것임. 2단계 합의로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중 간의 무역협의를 검토해보면 중국의 합의준수를 강제할 구체적인 수단도 결여.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해양 영향권을 증대시키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해·공군 및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임. 미국은 역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재조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다대함

중국은 더 이상 수세적인 대응 전략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및 대미 주도권 확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음

-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도 미국의 공백을 틈타 더 적극적으로 지역전략을 모색·전개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당장은 일대일로 전략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의 추진을 더욱 가시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 짐.
-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세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 자체가 패배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조건이라는 전략적 사고를 지니고 있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도 가능. 미국에 대해 자신감을 지닌 중국은 대미 정책을 보다 현란하게 up & down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둔 의지와 역량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스스로 철수하게 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

## 코로나19와 한중관계

한중간에 세계적 경제 쇠퇴 및 탈동조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경제적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동시에 비전통 안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제기하고 있음

### 유연한 대한민국 접근과 Charm Offensive

- 코로나19 발발 이후 자국의 안정을 위해 중국은 타국에 대해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계속 발하였음.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한국은 상호 신중한 태도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중국 체제의 문제점도 이미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우한과 일부 지역에서 억제한 중국 정부와 사회의 역량도 재조명될 것임. 이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사후 위기관리 능력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중국 일반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역량도 평가해 주어야 함.
- 중국은 추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중국을 “불가능한 국가나 체제”로 사전에 규정짓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함. 한중 양국 국민들이 보여준 미담들은 양국 국민들의 존중과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이번 협력의 경험은 시진핑의 방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함. 현재 한중 양국간 관계개선의 필요성에는 다 같이 공감하지만, 서로 주고받을 선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임.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시진핑의 방한이 성사되기는 어렵지만, 중국 측은 가급적 시진핑의 방한을 앞당겨(상반기중?) 한국정부에 선물을 안겨 주려 할 것임.
- 중요한 것은 시진핑 방한시 한중관계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임. 한중간에 세계적 경제 쇠퇴 및 탈동조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경제적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동시에 비전통 안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제기하고 있음. 양국은 상대의 고통과 문제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의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누구도 북핵문제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임.

-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한국으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북핵의 존재가 필요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미사일은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를 이끌어 낼 가장 강력한 카드임.
- 일각의 코드화한 대북 낙관론에 대해 우려함. 북한은 우리가 과거 경험한 안보 확보에 급급한 북한이 아니라 이미 "강국"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국가"임. 김정은의 주 관심은 자신의 집권기만 강화이며, 내년 당대회 개최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할 것임. 핵무기와 대남 무력의 우위 확보는 그 주요 근거임.
- 중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하여 중국이 남북한 양측의 안보 보장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임. 이 경우,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력 지역으로 편입될 개연성이 확대되는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상대적 퇴조에 따른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강화할 것임.

- 동아시아에서는 강압적인 외교보다는 포용에 기초한 유인과 접근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함.
- 이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이고, 한국은 중국이 반드시 타개해야 할 런치핀(linchpin)이 될 것임. 이는 중국이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임.
- 다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와 같은 사안은 중국이 대한민국 접근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음.

### 한국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할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이러한 시기는 앞당겨질 것임.

중국은 미국의 상대적 퇴조에 따른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강화할 것임. 동아시아에서는 강압적인 외교보다는 포용에 기초한 유인과 접근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함

발행처 |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 김흥규

편집인 | 서민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 031-219-3861

홈페이지 |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